

사진가사의
판자

'난폭자' 붉은귀거북의 운명



나주 시내의 하천변에서 엉금엉금 이 단가로 길을 재촉하는 한 쌍의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두 거북이의 산책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가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방해받았나 봅니다.

한 여름 더위에 쫓기는 붉은귀거북이는 사람들의 굽지 않은 시선에도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1980년대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 온 미국 태생의 붉은귀거북이는 방생 등을 통해 그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느릿느릿 운운 할 것 같은 거북이지만 포악한 성격에 엄청난 먹성까지 겸비한 붉은귀거북이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 시키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1년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붉은귀거북이는 이제는 포획대상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에 실패한 붉은귀거북이는 결국 퇴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의욕이 넘치면 과욕이 되고, 사랑도 넘치면 집착이 됩니다.

넘쳐버린 생명력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게 된 붉은귀거북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그래서?

어떤 남자가 마지못해 아내에 이끌려 음악회에 갔다. 연주가 시작된 지 반 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남자의 옆구리를 툭툭 찔렀다.

“세상에 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 자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말을 하려고 날 깨운 거야?”

■어떤 생각

도시에 살고 있는 남자가 시골에 있는 친척의 초대 받아 사냥을 하러 갔다. 현지 주민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남자는 휴식시간에 자기가 관찰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니까 여러 분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잡초들을 꺾어 놓더군요.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길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외쳤다.

“우리가 풀을 꺾어 놓는 건 풀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눈을 찌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①

20대 : 서로만 신났다고 한다.
30대 : 서로를 한눈팔며 산다.
40대 :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
50대 : 서로가 가없어서 산다.
60대 :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
70대 :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부부 ②

20대 : 딱 달라붙어 산다.
30대 : 마주보고 잔다.
40대 : 전장보고 잔다.
50대 : 등 돌리고 잔다.
60대 : 판 방에서 잔다.
70대 :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정답

어느 학교에서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다. 사자 우

리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세워 놓고 물었다.

“자... 여러분!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슨 동물이지?”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사자요!”

선생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정말 잘했어요! 그렇다면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한 아저씨가 소리쳤다.

“암사자!”

■좋은 이웃

어떤 가족이 휴가로 2주일간 집을 비웠다. 휴가에서 돌아온 가족은 이웃집 사람과 마주쳤다.

“당신네들이 집을 비우면 누가 당신의 집을 보아주는 줄 아세요? 바로 나라고요. 제가 신문까지 챙겼다고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집에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고 일렀나요?”

그러자 이웃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뇨, 난 바보가 아니라고요. 우리집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고 했죠.”

■천만다행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78세의 바람둥이 할아버지가 전국을 돌며 10여 명의 옛 여자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무엇 때문에?”

“글쎄 그 여자들이 모두 과부가 됐더라고!”

■죽기 전에

결혼 생활 40년 동안 유리 세공품을 모은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이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대꾸했다.

“하지만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걸.”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다.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저걸 다 팔아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죽일 테니까.”

바둑소식

노사초배 바둑대회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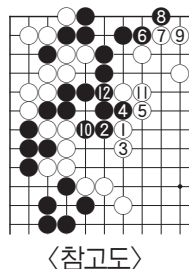
제1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가 오는 8월23일부터 이틀간 경남 함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아마 최강부, 단체전, 여성부, 중고등부, 초등 최강부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노사초(1875~1945년) 국수를 기념하기 위해 창립된 대회이다. 참가 자격은 백두부의 경우 현재 아마랭킹 64위 이내 기사만 된다. 또 여성부는 여성연령 지부 대항 단체전으로 각 지부별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된다. 아마최강부 우승자에게는 300만원,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200만원, 여성부 우승팀에게는 1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실제로 끝난 공격

4회전 2국 7보 (95~112)
白 김광식 5단 黑 박광주 5단
(주)송림 (포스코)



백 △가 빼아픈 급소 공격으로 흑 대마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형국이 다. 흑의 유일한 탈출구는 95인데 이때 김광식 5단이 오히려 냉정을 잃고 백 96으로 확 눌러가는 무대백한 수를 두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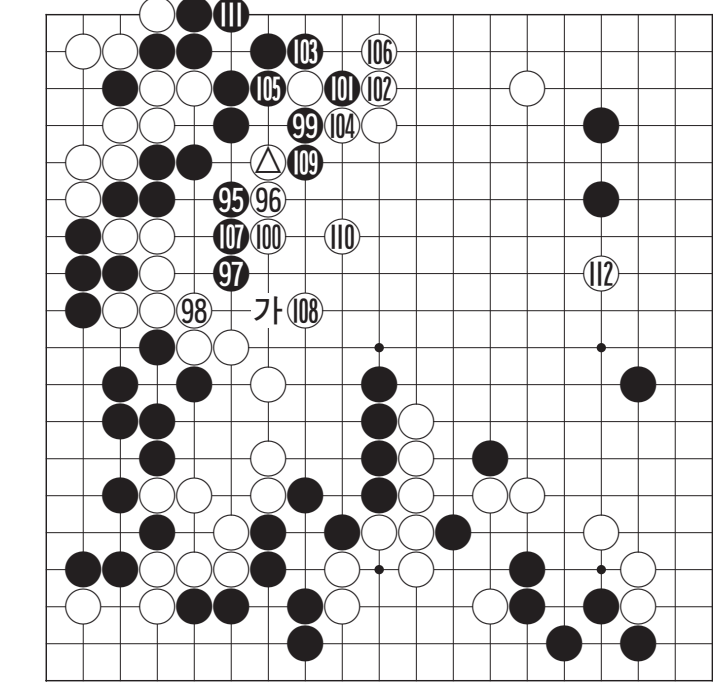
박광주 5단이 얼지구나 하고 흑 97로 뛰어나가자 그제서야 김광식 5단이 고민하기 시작한다. 97이 놓이고 보니 98에 잊지 않을 도리가 없을 뿐

더러 있는 모양이 고약하다. 또 은근히 아래쪽 백 대마도 얹어 손쉬운 흑에 대한 공격이 돌건너 가버린 것이다.

96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씌워 가야 했다. 그러면 흑은 2 이하 12까지 구차하게 겨우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 백의 철벽이 쌓여 절대 우세를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실전은 109로 머리를 내민데다가 '가'에 붙이는 뒷맛이 고약하여 공격이 대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김광식 5단은 쓴 입맛을 다시며 12로 새로운 전단을 모색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목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여행기방 꾸리기 ③

■동남아 지역으로 단기 여행

-옷은 돌돌 말아 부피를 최대한 줄인다. 여행기방의 바닥 면 흡에 티셔츠나 면 팬츠를 돌돌 말아 끼워 넣으면 훨씬 많은 양의 옷을 넣을 수 있고 흐트러짐을 방지할 수 있다.

-감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모자는 하나쯤 챙겨가는 것이 좋고, 간편히 소지할 수 있는 면 소재의 모자가 적당하다.

-카메라와 같은 외부 충격에 약한 아이템은 옷 사이의 공간에 끼워 넣어주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별한 케이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 부피도 줄일 수 있다.

-신발은 한 짝씩 겹쳐서 끼운 다음 헝겊 주머니에 담아 가방의 맨 가장자리에 넣어준다. 여러 켈레를 가져 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차곡차곡 위로 겹쳐 쌓아 담는다.

-음식에 민감한 경우 고추장, 김 등 밑반찬을 직접 준비해가는 게 좋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음 6월 27일 庚午)

子	36년생 뜻은 높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48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60년생 안정을 취한 연후에 생각 하고 행하라. 72년생 직장에서 뒷사람에게 인정받는다. 84년생 예측 불허의 실물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43
丑	37년생 신사가 생기기 앞뒤를 살펴라. 49년생 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61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내라. 73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펴라. 85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31
寅	38년생 건강과 재물은 같은 편이다. 50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펴라. 62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74년생 처와 재물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35
卯	39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51년생 직장 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6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이 이르다. 75년생 소신껏 추진하면 큰 득재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2, 28
辰	40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52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64년생 길보다 사소한 일이 모든 일을 주의하라. 76년생 돈은 들어오나 쓴 구멍 막기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21, 44
巳	41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사에 주의하면 길사 있다. 53년생 역마가 발동하니 장거리 여행은 길사다. 65년생 구설 시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히니 주변을 살펴라. 77년생 황재수가 보이니 복권을 구매하라. 행운의 숫자 : 18, 19
午	42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54년생 뜻밖의 횡재는 있으나 결과가 크지 않다. 66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용만 잃는다. 78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리면 큰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03, 27
未	43년생 먼저 배풀어라 그 보답은 클 것이다. 55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니 신뢰를 지켜라. 67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79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을 시키라. 행운의 숫자 : 12, 30
申	44년생 시작은 했으나 쉽지 않다. 56년생 시비 동안 분심이 발생하나 큰 손실은 없다. 68년생 지혜는 재사를 손조롭게 만드니 뜻이든에게 지혜를 빌려라. 80년생 무리하게 할수록 허리가 아프다. 행운의 숫자 : 17, 42
酉	45년생 주변을 청산하면 자신도 올라간다. 57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도 지켜진다. 69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81년생 좋은 이성의 만남이 예상되니 준비하고 기다라. 행운의 숫자 : 01, 41
戌	46년생 눈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족을 살펴라. 58년생 다른 사람의 불만을 살펴내 불평도 사라진다. 70년생 배우자 덕은 본인 스스로 만든다. 82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43
亥	47년생 지출은 발생하나 오히려 수입이 더 크다. 59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71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공이 약속된다. 83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에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3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1212></p> <p>Did you like the movie? 영화 좋았어?</p> <p>A : Did you like the movie? B : No, it was kind of boring. A : That's what I thought. B : Oh well, you win some, you lose some.</p> <p>A : 그 영화 좋았어? B : 아니, 약간은 지루했어. A : 역시 생각했던 바로구나. B : 음, 그런데 말야, 일장일단이 있었어.</p> <p>* boring : 지루한, 따분한 * win some, you lose some. : 따져보면 Same-same 이야. * 약간은 놀라웠지 = It was kind of a surprise.</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212></p> <p>この中のどれにする。 이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 거야?</p> <p>A : 田中さん、かんたんな心理(しんり)テストだからちょっとやってみて。一人で生活(せいかつ)している時、一匹だけ動物(どうぶつ)を飼おうとしたら、この中のどれにする。 B : そうだな。ねこ。 A : ふん。なるほど。もっと大(おお)きい動物にするかと思(おも)ったけど あのね、これを選(えら)ぶ人は獨立心(どくりっしん)が強いんですけど。犬(いぬ)とちがってあまり人間のそばにこないですよ。</p> <p>A : 다나카 씨, 간단한 심리 테스트니까 잠깐 해봐. 혼자서 생활할 때, 한 마리만 기른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 거야? B : 글쎄, 고양이. A : 흠, 과연 좀 더 큰 동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말야, 이걸 선택한 사람은 독립심이 강한 거래. 개와 달리 별로 사람 옆에 안 오잖아.</p> <p>心理(しんり) : 심리 獨立心(どくりっしん) : 독립심</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89></p> <p>那是谁的照片? 저것은 누구의 사진이야?</p> <p>A: 那是谁的照片? Nà shì shuí de zhào piàn? 나 스웨이하 쑹구위? B: 那是我女朋友的照片。 Nà shì wǒ nǚpéngyou de zhàopiàn. 나 스 쑹 쑹 쑹구위 쑹구위? A: 你的女朋友挺漂亮。 Nǐ de nǚpéngyou tǐng piàoliang. 나 너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B: 真的吗? zhēn de ma? 진짜? A: 저것은 누구의 사진이야? B: 저것은 내 여자친구의 사진이야. A: 네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B: 정말? 照片 [zhàopiàn] 사진 挺 [tǐng] 매우, 아주</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자 이야기 <829></p> <p>蕩平(탕평) 쓸어버릴 탕, 평평할 평</p> <p>탕평(蕩平)이란 '서경(書經) 홍범(洪範)편의 "자기편으로만 기울거나 편물이 없으면 임금의 길은 넓고도 넓으리라(무편무당.王道荡荡.無偏無黨.王道蕩蕩). 편물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임금의 길은 평평하리.(무당무편.王道平平.無黨無偏.王道平平)"에서 취한 말이다. 즉 '탕평'이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말이다.</p> <p>조선조 역사에서 당쟁(黨爭)을 없애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군주는 21대 영조(英祖)이다. 그의 출생지 자체가 당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 영조의 어머니는 남인(南人) 계열의 장희빈에게 밀려난 인현왕후의 무수리 출신인 숙빈최씨이다. 따라서 영조는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노론계열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오히려 노론계의 힘이 밀려 아들 사도세자를 뒤에서 밀고 만다. 이런 당쟁의 참담(慘澹)함을 뼈속 깊이 느낀 영조는 양반(兩班) 세력의 균형(均衡)을 취하여 왕권(王權)의 탕탕평평(蕩蕩平平)을 꾀하는 탕평책(蕩平策)을 제시하였다. 이런 영조의 탕평의 의미가 담긴 음식이 '탕평채(蕩平菜)'이다. 청포묵에 고기와 나물을 섞어 무친 탕평채를 신하들에게 내놓으며, 여러 가지 함께 먹으니 맛이 조화를 이루듯, 조종도 여러 당파가 함께 참가하여 조화를 이루어야한다고 말했다.</p> <p><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